

표는 없어도
할 말은 있다!

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!

장소: 아주대학교 종합관 401호

시간: 5월 17일 2시

주최: 할 말 기획단

주관: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

■ 환영합니다!

‘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’ 행사에
참여해 주신 모든 청소년, 비청소년
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!

■ 왜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을까?

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4년,
우리들의 인권은 정말 잘 지켜 지고
있나요? 우리 뿐만 아니라도 또 학교 밖
청소년들은 어떻구요? 왜 우리는
투표권이 없다며 현실이 이런데도
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걸까요? 우리는
정말 그들이 말한대로 ‘미성숙한
걸까요? 라며, 그동안 그 많~은 할
말들을 참아 온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기
위해서 ‘멍석 좀 깔아 드렸습니다.’ 우리
다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아요!

■ 행사 진행

1부

나의 목소리를 들어라! 숨겨왔던
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에요!
후보들의 이야기 보다는 여러분이
중심이 된답니다~

쉬는 시간

20분 동안 진행됩니다! 다만, 이 때
많은 분들이 늦으시면 2부에는 시간이
조금 모자랄 수도 있으니 시간을 잘
지켜주세요!

2부

본격_정책_토크.toron 교육감
후보들에게 그 후보들의 정책과
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책등을 묻고,
따지고, 씹고(?) 즐기는 시간이에요!